

‘중앙공원1지구’ 청동기~조선시대 유물 무더기 발견

광주 서구서 청동기 석관묘·고려시대 자봉사 명문기와 등 491점 고려 화폐 꾸러미·삼가마터도...기록으로 보존해 공사 차질 없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1지구’에서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광주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려시대 대형 사찰의 존재를 알려주는 명문기와와 화폐 꾸러미, 삼(廟)가마 터, 청동기 시대 석관묘 등 고대사를 규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됐다.

18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 금호동 산55-1번지 등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성사업부지 유적에서 청동기~조선시대 유물 491점이 발굴됐다.

유물은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발굴된 금호동 산55-1번지를 비롯한 쌍촌동, 풍암동 일대에서 출토됐다.

연구원의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석관묘와 고려~조선시대 석관묘, 토기·기와 가마터,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가위·수저·동전·관정·화살촉·옥구슬·도자기 등이다.

청동기시대의 석관묘는 쌍촌동에서 1기가 확인됐으며 덮개돌이 이중구조이고 점토로 밀봉돼 보존상태도 양호했다. 석관묘 중앙과 가장자리에서는 돌 화살촉 6점이 출토됐는데, 스펀지가 없는 무경식 석촉이 다수 출토돼 청동기 시대 중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광주 광산구 평동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으나 유물까지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청동기시대와 관련 광주지역에서 드

물게도 이른 시기의 석관묘와 유물이 발견돼 의의가 있다”면서 “이런 청동기 시대 석관묘가 청동기 전기 묘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가마터 2기와 공방지가 출토됐다. 앞서 광주에서 삼국시대 공방지가 발굴된 곳은 광산구 비아·하남·산정·연산동 네 곳에 불과했다. 또한 이 가마는 삼국시대 중심취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중심권역에서 발견돼 특이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풍암동 유적에서는 자봉사 개범(慈風寺蓋凡)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장이 발견됐으며,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양인 일취문·당초문·연화문 막새류 등 유물도 출토돼 고려시대 큰 규모의 사찰이 존재를 암시했다. 자봉사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로, 고려시대 사찰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풍암동에서는 삼(廟)가마 터가 발굴됐다. 이 가마터는 고려나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열실과 중속실, 배연구, 배수구 등을 갖추고 있는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형태다.

금호동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토광묘, 석관묘 등 무덤에서는 도기병·호, 청동기류, 철기류뿐 아니라 동전 19점이 들어있는 꾸러미가 발견됐다.

동전은 고려 성종 대 제작된 건원중보(乾元重寶)와 숙종 대 제작된 삼한중보(三韓重寶), 해동통보(海東通寶), 동국통보(東國通寶)로 추정되는 동



청동기 석관묘

전이 모두 나왔다. 연구원은 고려시대 동전의 역사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을뿐 아니라 고려시대 화폐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유물을 국가유산청 등에 인수 인계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공사는 일정 범위 변동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유적지 발굴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되 현장 원형 보존은 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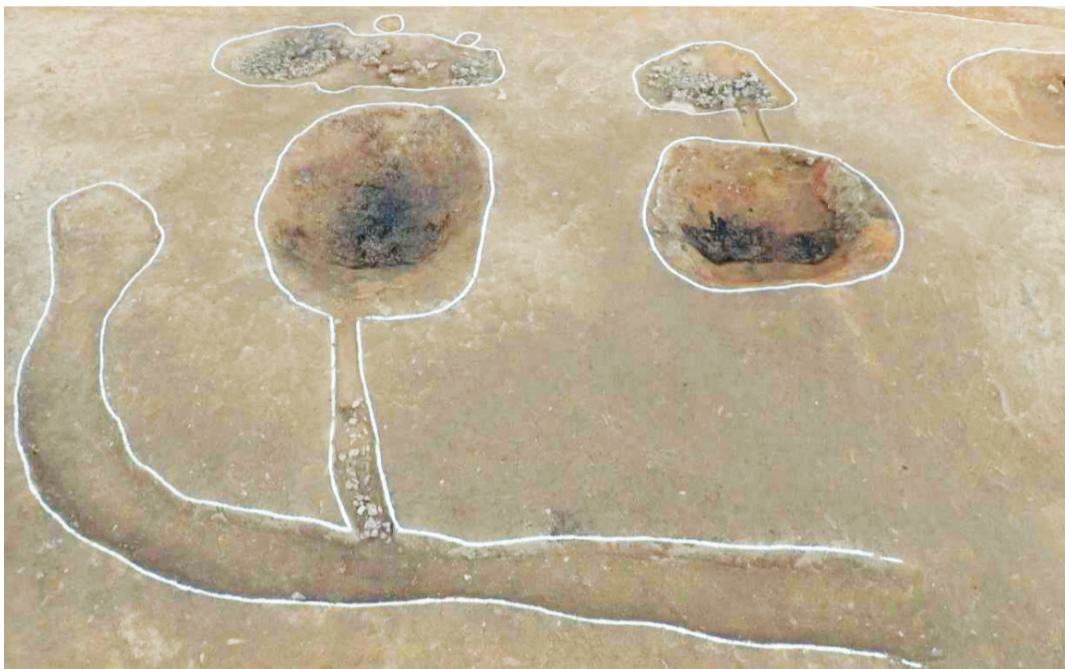
/유엔제 기자 yjyou@kwangju.co.kr



고려 시대 동전 꾸러미



고려 시대 기와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성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삼가마터. <광주시 서구 제공>

회생절차 대유위니아 광주공장 가동 중단 위기

전기요금 수역원 장기 미납

회생 절차 중인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광주 공장이 수역원의 전기요금을 장기 미납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한국전력(한전) 등에 따르면 대유위니아 계열사인 위니아 전자 매뉴팩처링과 (주)위니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총 9억 7000만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을 미납했다. 위니아 전자 매뉴팩처링은 7억 4000여만원, (주) 위니아는 2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18일 고지될 지난 달 요금까지 포함하면 미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유위니아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미납요금 9억여원 중 4억원은 회생채권으로 묶였지만 나머지 5억여 원의 채납금은 남아있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임금 체불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은 수역원에 달하는 전기세까지 미납되면서 공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직원 대부분이 전기세 미납 사실을 알고 있고 언제든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서 “공장이 중단되는 것

보다는 가동이 유지돼 전기료를 변제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전 측은 전기세 미납 3개월이 지난 뒤로부터 수차례 공문과 단전(斷電) 공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원적상 전기 요금 3개월 미납 시 단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은 쉽게 전기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대유위니아 공장의 하청 업체까지 포함하면 지역민 수천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단전 조치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더 안전한 광주 만들 것”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취임

박성주(58·사진) 신임 광주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청장은 이날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더욱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날로 복잡해지는 범죄양상에 적응하고 조직개편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동료 간의 직무 지식 공유·현장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불법과 무질서에 맞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최근 약성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사범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신속·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 및 관리를 위해 형사기동대 등 현장 조직을 활용해 지역안전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스토킹·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치안약자 대상 범죄는 예방과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시켜야 한다”면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건브로커 사건 등으로 신뢰를 잃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직 운영과 균형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면서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성 출신인 박 청장은 광주 광덕고를 졸업하고 1989년 경찰대 5기로 입문했다. 지난 2020년 1월 경무관 승진 후에는 광주경찰청 수사2부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 7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금 체불 몰랐다” 대유위니아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 심리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16일 열렸다.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계열사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광주지역 계열사 법인을 그룹 비서실을 통해 직접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매

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재판에 박 회장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은 지주회사 대주주로서 회사 전체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밀리고 지급이 안 되는 사실 자체를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